

근대 권력, 개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다.

-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근대 권력 행사 모습을 중심으로 -

2017***** 불어불문학과 김현수

개 요

I. 미셸 푸코가 제시하는 근대 권력의 특징과 근대 사회의 모습

II.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

- II - 1.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 II - 2.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 II - 3. 비정상을 교정하는 사회

III. 이름없는 주드를 통해 근대 사회의 가면을 벗겨낸 하디

미셸 푸코가 제시하는 근대 권력의 특징과 근대 사회의 모습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머릿속에 문무백관을 거느리는 황제, 혹은 죄인을 심판하는 법관을 떠올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황제나 법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힘으로 받아들이며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전근대 사회에서의 권력이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과 영주 같이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고 마찬가지로 권력의 행사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전근대 사회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7,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성립을 계약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학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인민들이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학자가 등장했다. 또한 천대 당하던 상공인 계층이 경제권을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왕과 귀족의 불합리한 행동에 점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1688년 영국에서의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의 시민혁명,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등 전근대적 권력 구조를 과감히 폐지한 역사적 사건들로 발전했고 각국 사회는 시기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신분의 높낮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전근대적 사회에서 탈피해 만민의 평등을 전제로 사회를 운영하는 근대적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적 사회로 나아가는 시기에 권력은 그것을 행사할 주인 - 과거에는 마땅히 왕이나 귀족이었어야 할 - 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권력은 어떤 방향으로 변했을까? 그리고 근대의 권력은 어떻게 전근대의 권력과 차별화될까?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미셸 푸코는 저서와 강의를 통해 권력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는다. 푸코는 먼저 권력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정의한다. 첫째, 근대의 권력은 전근대의 왕권과 국가권력과는 달리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연결망처럼 퍼져 형성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단어를 듣고 황제와 법관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푸코는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되거나 신분에 의해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사회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권력의 주체라고 보았으며 실제로 모든 시민이 사회의 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징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권력이라는 단어에 대해 황제나 법관 보다는 자기 자신과 친구, 가족, 직장동료를 떠올리는 것이 푸코가 봤을 때는 더 적절한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푸코는 사회망을 통해 형성된 권력은 한 개인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동시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주체로 재생산한다고 말했다. 푸코가 주장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보아 푸코는 수직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근대적 권력행사와는 달리 근대의 권력의 행사를 수평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푸코는 사회 신경망을 이루는 한 개인을 권력의 주체라고 해석한 것이다.

푸코가 주장한 근대 권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주장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독일과 영국에서 최초의 교도소가 개설되는 시기부터 18세기 말까지의 고전주의 시대를 '감금의 시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고전주의 시대의 구빈원과 교도소에 자유주의자, 성도착자부터 정신병자, 무신론자, 기형인, 거지 그리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감금되었기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환자로서 감금된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의 인간 표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푸코는 파리 구빈원에서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과 실제로 살인, 강간, 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는 (사회의 기준으로 비표준으로 인식된 정신병자, 무신론자 등등) 그들을 '광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환자인지 범죄자인지 밝히지 않고 감금한다. 이는 고전주의적 이성애 부여된 권리이다.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사, 2003, p. 213)

그는 근대 사회가 사회의 표준을 근거로 그 사회에 속한 한 개인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 뒤 비정상으로 판단되면 바로 그 개인을 '환자'로 규정하고 강제로 획일화라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획일화를 위해 근대 사회는 비정상적인 개인을 죽이는 전근대적인 권력 행사방법을 채택하는 대신에 비정상적인 개인의 생계수단, 법

인격, 인권을 박탈해 단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권력 행사방법을 취했다. 전근대의 물리적인 권력 행사와는 달리 근대의 합리성과 비폭력성의 가면을 썼지만 근대의 권력 행사는 비정상적인 개인을 파괴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성격은 전근대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 - 1.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푸코가 정의한 근대 권력의 특징과 근대 사회의 모습을 이해한 지금, 드디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토머스 하디는 이름없는 주드에서 푸코가 말한 근대 사회의 모습과 근대 권력 행사 모습을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그려낸다.

먼저 이름없는 주드에서 사회가 제시하고 요구하는 표준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이들을 푸코가 말한 권력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자.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내인 수를 주드에게 보내준 필롯슨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한다.

“부인이 애인과 몰래 도피 중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선생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롯슨이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중략) “집사람은 대개 남편에게 위안이 필요한 여건 아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난 그 문제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이사장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중략) “아내가 애인과 떠나겠다고 허락해 달라기에 그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96)

이사장은 수를 보내준 필롯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는 나중에 필롯슨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다. 한편 작품에서 주드와 수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결혼이라는 일종의 사회가 만든 계약이 오히려 두 사람의 애정을 식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비록 마음으로는 ‘사랑’을 하지만 사회가 제시한 ‘결혼’이라는 계약은 거부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사회가 제시하는 ‘혼인’과 ‘기혼’이라는 계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주드와 수를 사회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는 올드브리컴에서 주드와 수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프링가와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수와 주드의 마음과 정감과 입장과 두려움을 대체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이가 느닷없이 나타난 이상한 사실과, 그 아이가 주드를 아버지라 부르고 수를 어머니라고 부른 사실과, 결혼 등록소에서 조용히 치르려던 결혼식이 연기된 것과,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혼재판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모두 어울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해석만을 열어주었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96)

필롯슨에 대한 이사장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그 누구도 사회가 제시한 관습을 거부한 주드와 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주드와 수가 결국 올드브리컴을 떠나고 크라이스트민스터

로 다시 돌아왔을 때 수에 대한 하숙집 주인의 말에서도 당시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엿볼 수 있다.

남편의 갑작스레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그런 여자를 여기에 둔다는 거요? 교도소에나 갈 여자야! (중략) 저런 사람들은 속을 모른다는 것쯤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저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242)

실제로 수는 하숙집 부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숙집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사회가 제시하는 기혼의 여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죄로 교도소 가야할 여자, 속을 모르는 여자로 평가 당했다.

하디는 이 외에도 개인이라는 근대 권력의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을 거부한 주드와 수 그리고 필롯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규정짓는 모습들을 그의 작품 곳곳에 그려 넣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주드, 수, 필롯슨과 같이 ‘비정상’으로 규정된 개인에 대해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사회, 즉 근대 사회가 각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 - 2.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이름없는 주드에서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주인공들은 소설 내에서 단 한 번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수단과 법인격 같은 기본적 생존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회에 의해 부정당했고 너무나 쉽게 박탈당했다. 먼저 사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아내인 수를 주드에게 보낸 필롯슨은 어떻게 되었는가?

필롯슨에게 이사회에 조용히 참석하라는 요구서가 전달되었다. (중략) “사표를 내라는 요구야. 그들 말로는 아내의 간통을 묵인해 준 이유 때문이래.” (중략) 그는 외로운 병상에 누워 중년 남자의 참담한 심정에 빠졌다. 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의 인생이 마침내 실패와 암울함을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p. 97~100)

필롯슨은 사회의 가치와 대치되는 신념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진 생계수단을 사회에 의해 너무나도 무력하게 빼앗겨버린다. 즉 전근대 사회에서 권력 주체인 왕과 양반들은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개인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빼앗아버렸다면, 이름없는 주드에서 보여주는 근대 사회의 권력은 생계수단을 빼앗아버리면서 간접적으로 이들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필롯슨과 같이 사회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 주드와 수도 다르지 않다.

“이상한 부부가 십계명의 두 목판을 칠하다니! 바일스와 윌리스 사가 저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중략) “여기요, 이 작업에 대해서 불평이 막 들어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거북해하면서 말했다. (중략) “미안하지만 선생하고 저 여자분께서는 일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이 일을 마치도록 해주세요. 임금은 한 주일치를 드리겠습니다.” (중략) 주드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탁자로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사퇴서를 썼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

종화 역, 민음사, 2007, pp. 190~196)

주드와 수도 사회에서 제시한 결혼이라는 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에게 배척당하고 끝내 필롯슨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그들의 생업을 잃게 된다. 사회가 박탈한 것은 생계수단, 즉 경제권뿐만이 아니었다. 사회는 더 나아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빵집 아이와 식료품 가게의 점원이 처음 한동안은 가게 심부름을 왔을 때에 정중하게 수 앞에서 모자를 벗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인사를 하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이웃 동네 직공의 아낙네들도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똑바로 보도블럭만 쳐다보고 지나갔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185)

이는 수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드는 앞에 설명한 위원회의 모임에 나갔다. 그는 모임에 좀 늦게 도착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착해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면서 누구도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196)

응용발달 심리학자 김문성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사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신호로 정의한다. (김문성, 『정말 재미있는 심리학 콘서트』, 스타북스, 2016, p.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와 주드를 보면서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다. 즉 사회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수와 주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속한 사회에 의해 부정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법인격조차 박탈당하는데, 하숙집에서의 하숙을 거절당하는 수의 모습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부인, 미안한데요.” 여자가 말했다. “방을 한 주일씩이나 빌려줄 수 없네요. 남편이 안 된다니, 방을 비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내일 아침 일찍 떠났으면 좋겠어요.” 수는 법적으로 방을 한 주일 동안 쓸 권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인과 남편 사이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요구대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242)

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본인도 하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암묵적으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사회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이들은 사회로부터 경제권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과 하물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다.

하디가 그려낸 근대 사회는 이렇게 사람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모습만으로도 독자들에게 근대 사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하지만 더욱 더 독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개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전근대와 같이 높은 지위의 몇몇이 아니라 사회의 관계망을 이루는 모든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즉 근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주

체가 전근대처럼 일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어제만 해도 반갑게 인사한 자신의 바로 옆에 존재한 이웃, 친구, 직장동료, 가족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작품 내에서 한동안 수에게 예의를 표시하며 인사했던 가게 점원, 빵집 아이가 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곧 수를 무시하는 부분과 주드의 직장동료들이 직접 주드를 압박해서 사퇴서를 쓰도록 종용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푸코는 이러한 근대 사회의 모습을 대해 모든 시민이 사회의 적에 대한 징벌에 참가했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2003, p. 207)

비록 근대 사회가 개인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들을 문자 그대로 ‘죽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 푸코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민 한 명이 가지는 가치가 전근대적 사회에 비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 사회의 통치자들은 이들이 국부증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문수,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한국행정논집 제 22권, 2010, p. 7) 둘째, 근대 사회의 통치자들은 절대 왕정이 부패하는 과정을 직접 목도하며 처벌을 통한 전근대적 권력 행사방법이 결국 다시 사회를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2003, pp. 207~208) 따라서 근대 사회는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죽이는 대신에 살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사회의 기준으로 ‘ 획일화’라는 방법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름없는 주드에서 또한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 주인공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는 모습들이 나온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자.

이름없는 주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 - 3. 비정상을 교정하는 사회

이사회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당한 필롯슨은 친구인 길링엄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통 받는 아내에게 자유를 준 내 행동이 창피하다고 사표를 내라는 요구야. 그들 말로는 아내의 간통을 묵인해 준 이유 때문이래. 그러나 나는 사표를 내지 않아!” “나 같으면 내겠어.” “나는 아니네. 이건 그 사람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p. 97~98)

필롯슨의 가치관은 분명 사회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었지만 필롯슨은 그의 가치관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길링엄에게 이렇게 말한 뒤 곧 필롯슨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으며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몸져눕는다. 이렇게 사회에 의해 한 번 파괴당한 필롯슨은 이후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소설 마지막 부분에 수가 주드를 버리고 필롯슨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한 뒤 필롯슨이 길링엄과 나눈 대화이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자해를 한 것, 나도 잘 알고 있네.” “이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면 단단히 지

키게” (중략) “그래, 그렇게 하지.”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나는 여자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어. 그녀를 놓아준 것에 정기가 있었겠지만 다른 문제에 관해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겠지.” (중략) “충동을 따르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필롯슨이 매 순간 점점 자신의 위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말을 이었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p. 304~305)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필롯슨의 신념은 지속적인 사회의 파괴를 당하면서 점차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 그는 사회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빚어진다. 그는 수를 주드에게 보낸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이는 필롯슨 뿐만이 아니다. 소설 마지막에 그토록 사랑했던 주드를 버리고 다시 필롯슨에게 돌아가는 수의 가치관도 큰 변화를 겪는다.

“우린 순응해야 돼요!” 그녀가 비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힘의 오랜 분노가 그 절대자의 가엾은 피조물인 우리 머리 위에 쏟아졌어요.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신과의 싸움은 소용없는 짓이에요.”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 262)

이는 이교도 신상을 구입하고 편의를 따라 성경책을 뜯어서 가지고 다녔던, 종교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던 이전 수의 모습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결국 수는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종교관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고 ‘사회가 보는’ 자신의 짝인 필롯슨에게 돌아가는 수의 모습도 결국 수가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사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와 필롯슨과는 달리 주드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사회가 보는 자신의 짝인 아라벨라를 거부하고 애타게 수를 찾는다. 그러나 결국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주드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다.

“목... 물... 수... 자기... 물 한 방울만 줘요. 부탁이요. 오. 부탁이요!” 그러나 물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중략) 만세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 소리에 희미한 오르간 소리가 압도되었다. 주드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갈라진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중략) 그녀가 외쳤다. “이럴 때 죽다니! 왜 지금 죽었어!”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pp. 372 ~ 376)

결국 수와 필롯슨은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빚어져서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주드는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그의 가치관을 지켰다. 여기서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 생산된 수와 필롯슨이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디는 수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름없는 주드』를 통해 근대 사회의 가면을 벗겨낸 하디

애초에 근대 사회는 전근대의 폭력적인 권력 행사에 대항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근대 사회는 전근대적 사회와는 다른 비폭력성을 강조해야 했고 실제로 근대 사회는 합리성과 비폭력성을 인민들에게 강조하면서 제도에 대한 순응을 요구했다. 푸코가 주장하듯 그 과정에서 근대 사회의 통치자들은 사회의 모든 이들을 권력의 주체로 재생산하였으며 전근대 시대에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은 조각조각 나눠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모든 개인에게 공유되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평등한 선진적인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분배는 사회의 개인, 즉 모든 권력 주체를 감시자와 처벌자로 바꾸었다. 즉 사회의 모든 권력 주체가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에 관여 하였으며 동시에 비정상으로 규정된 개인에 대한 처벌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비록 비폭력성과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이면에 숨은 본질은 오히려 전근대적 권력 행사보다 더욱 더 두려운 것이었다.

많은 소설에서 한 개인이 폭력, 고문, 감금 같은 강력한 전근대적 권력 행사를 통해 무력해지는 모습을 그려낸다. 조지 오웰의 1984가 대표적이다. 1984에서 주인공인 윈스턴은 애 정부의 101호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결국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재조립된다.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pp. 397 ~ 409) 반면 하디는 독특하게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닌 근대적 방법이 어떻게 한 개인 비폭력적으로 파괴시키는지 그려내고 있다. 하디는 『이름없는 주드』를 통해 근대 사회가 쓰고 있는 비폭력성과 합리성의 가면을 벗겨내면서 독자들에게 근대 사회를 더욱 극적으로 비판한다. 즉 그는 폭력적이지 않은 묘사를 통해 가장 폭력적인 근대 사회의 맨얼굴을 세련되게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그는 전근대적 권력을 그린 다른 소설과는 달리 정적인 근대 권력 행사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폭력적으로 한 개인을 무력화 시키는 많은 소설들과의 차별성을 이루어 냈다. 이런 면에서 토머스 하디의 『이름없는 주드』 근대 영국 수도사에 의해 불태워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것과는 별개로 충분히 명작이라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참 고 문 헌

- 김문성, 『정말 재미있는 심리학 콘서트』, 스타북스, 2016
- 대런 애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역, 시공사, 2012
-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 우치다 타츠루,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경덕 역, 갈라파고스, 2010
- 이강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서양편]』, 두리미디어, 2002
- 이문수,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한국행정논집 제 22권, 2010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2003
-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사, 2003
-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정종화 역, 민음사, 2007
-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역, 민음사, 2007